

성경 기록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누가복음 강해 10)

성경말씀: 눅4:14-30

지난 주: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 탄생, 초미의 관심사, 사가랴, 엘리사벳, 시므온, 안나. 침례자 요한, 목자들, 동방의 지혜자들, 가브리엘, 천사들, 삼위일체 하나님(눅3:21-22), 마귀가 등장할 차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기시고 우리를 구조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심. 둘째 아담

배경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고 성령 충만 속에 자기 고향 갈릴리로 돌아오심(14). 요1:19-4:54 내용이 이때 일어남. 누가만 그분의 고향 나사렛에서의 일을 기록한다.

주님의 일 혹은 사역(18): 복음 선포, 마태: 하늘의 왕국의 복음, 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막1:1)=하나님의 왕국의 복음(1:14), 누가: 복음(4:18; 7:22)

복음은 무엇이고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기준은 무엇인가? 마음대로 규칙을 짜고 행하는가? 아니다! 메시아가 와서 선포하고 해야 할 일도 규정되어 있다. 성경 기록에! 성경 기록을 벗어난 메시아는 No!

복음: 고전15:3-4,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도 성경 기록대로 하는 성경 신자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 그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는 썩을 대로 썩었다(사1:10-12; 롬10:1-3).

예수님은 이것을 개혁하실 책무를 가진 분이다. 지금 성령 충만해서 광야에서 돌아왔다. 기적을 행하신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신다(14-15). 이쯤 되면 기존 틀을 모두 무시하고 새 판을 짜야 하지 않을까? 아니다! 예수님은 회당 예배에 참석하셨다. 한 번만이 아니라 매번, 자기의 관례대로(16)

물론 율법의 성취도 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공예배를 중히 여기셨다. 개인 예배 중요, 그런데 공예배는 규칙적으로 습관을 만들어 참여해야 한다.

이 시대 교회가 썩었다. 사실이다. 그래도 가능한 한 공예배를 가야 한다.

공예배를 게을리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또 하나의 바리새인이 된다(히10:24-25).

회당 예배 및 성경 기록 성취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 회당이 세워짐. 예배: 개회 기도, 믿음 고백(신6:4-9), 기도, 구약성경 낭독, 회당의 치리자나 방문하는 랍비의 간단한 설교(행13:14-16), 기도

이 날 예수님은 방문자 랍비, 섬기는 자가 이사야서 두루마리, 예수님은 사61:1-2를 설교 본문(눅 4:18-19)으로 택함, 이것이 메시아 사역의 현장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사61:1-2를 메시아 구절로 이해하고 있음. 그런데 예수님이 이 구절을 택하더니 읽으시고 21절에서 “이 성경 기록이 이 날 너희 귀에 성취되었느니라.”고 선언하심.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스스로 메시아이심을 선언한 것이다.

메시아 사역의 내용(18-19)

[주]의 [영]께서 임하사 기름을 부으심(한량없는 성령 충만).

1.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선포(구약시대 하나님의 법의 중요성, 땅의 백성, 공의와 공흠, 십일조의 일부, 초대 교회에서도 가난한 자들 배려, 교회는 사회사업 단체가 아니지만 마찬가지 배려),
2.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3. 포로 된 자들 구출, 4.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5.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6. [주]의 받아 주시는 해 선포

이것은 구약성경 레위기 25장의 희년 제도 성취

I. 유대인들은 7년마다 안식년을 지켰으며 이때에 온 땅은 경작되지 않고 안식하였다(출23:10-11; 레25:1-7). 유대인들이 온 세상의 창조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또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주관하는 것을 보여 주시게 하기 위해 안식년 제정. 안식년에 땅에서 저절로 자란 과일이나 곡식을 가난한 자들과 종들에게 그냥 주라고 명령하심으로써 인정을 베풀게 하셨다.

II. 희년(Jubilee) 50년마다 치르는 히브리 사람들의 명절. 이것은 7년이 일곱 번 지난 뒤에 왔다(레 25:8-17). 안식년 다음 해의 희년도 안식년, ‘주빌리’라는 말은 ‘소리 나다’ 혹은 ‘흐르다’를 뜻하며 희년이 다가옴을 알리는 나팔소리(양 뿔 나팔)를 가리켰다. 희년에는 아무도 씨를 뿌리거나 거두지 않았으며 땅은 저절로 내는 것들로 채워졌다.

(a) 개인의 자유 회복: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상속물을 되찾았고 히브리 사람으로 종이 된 사람들은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자유를 얻었다(레25:1-55). 7월 10일(레25:9)은 속죄일이고 산헤드린은 이때에 나팔을 불게 하였으며 종들은 곧바로 자유를 얻고 땅은 본 주인에게 돌아갔다(13, 47-55). 이것은 공홀의 법, 히브리 사람들 간의 평등 유지, 주님은 모든 것을 배분해 주는 분, 자기들은 청지기, (b) 재산의 회복(25:15), (c) 빚 면제

안식년/희년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한 자, 병든 자
예수님은 구약 성경 기록을 완전히 성취하려 오심. 즉 희년 제도의 완성(사61:1-2)

그래서 주님은 좋은 소식을 선포하며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려고 오셨다. 눅4:31-42, 마귀, 병여기의 희년은 오직 메시아만 완전히 이를 수 있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우리가 해야 할 일: 동일하다. 우리는 사회사업을 하지 않는다.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여 마귀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긴다.

사랑침례교회 존재의 목적: 기쁨의 해 선포, 4:18-19 낭독

나사렛 유대인들의 문제

1. 복음 선포를 들음. 메시아 기적을 봄. 그런데 믿지 않음
2. 고향 사람들의 생각: 저자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평가하면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시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왜 사람이 되셨는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대신 속죄의 의미

현시대 사람들의 문제: 사대성인, 좋은 분,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3. 그들의 또 다른 주장: 가버나움에서 행한 많은 기적을 여기서도 행하라. 예수님의 거절 불신자들에게는 불신이 고리를 물고 계속해서 생긴다. 보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마12:39),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다”. 눅16:29-31

4. 예수님의 복음은 이방인도 포함한다. 유대인들의 관점: 아브라함의 씨, 선민, 이방인은 개돼지.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려 오셨다.

구약시대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한 두 사람: 엘리야와 엘리사

a. 엘리야 시대: 바알 숭배, 3년 반 동안 기근, 음식이 없다. 고아와 과부 양산, 왕상17:8-16,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돈의 과부에게 보낸다. 과부의 말: 가루 한 움큼과 기름, “빵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 합니다.”, 먼저 나를 위해 빵을 만들라. 순종할 때에 비가 올 때까지 가루 통이 고갈되지 않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음. 그런데 이 여인이 누구냐? 이방인이다.

b. 엘리사 시대: 왕하5장, 나병 환자들이 많았다. 그런데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구출받았다. 그는 이방인이었다. 왜 구원받았느냐? 너희처럼 불순종하지 않고 마음을 부드럽게 했다.

c. 선민, 조상, 재산, 업적, 명예 자랑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나의 가난한 상태, 병들어 신음하는 상태, 영적 파산 상태”를 인정하며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가 복음의 혜택을 누린다.

5. 유대인들의 반응: 회개는커녕 예수님을 도시 밖으로 밀어내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게 하려 함.

6. 하나님의 복음이 제시되면 두 부류의 반응이 나타난다. 한 부류 순종, 다른 부류 저항과 불순종, 극도의 증오, 우리는 어떤가? 이 좋은 소식이 우리를 송두리째 바꾸는 것을 허락하는가?

처음에 진리를 들으면 잠시 좋아하다가 곧 진리로 삶을 바꾸라고 하면 증오하는 자들이 많다.

결론

예수님은 성경 기록대로 성경 기록을 성취하신 분이시다. 우리도 바이블 빌리버가 되어야 한다.

창조와 양심과 성경을 통해 사람이 알 수 있게 해 주신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한다. 진리가 삶을 바꾸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다.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 그러나 성경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한다(요8:31-32; 14:6). 영적인 파산 상태, 죄의 노예 상태를 벗어날 수 있게 한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